

# 촉매, 고기능 중심 “승승장구”

## 일본, 세계적인 환경보호 힘입어 ... 신제품 개발로 판매전략 전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나 석유정제용 촉매 수요가 신장함에 따라 촉매공업이 고성장하고 있다.

지구환경 보호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기능 촉매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시장규모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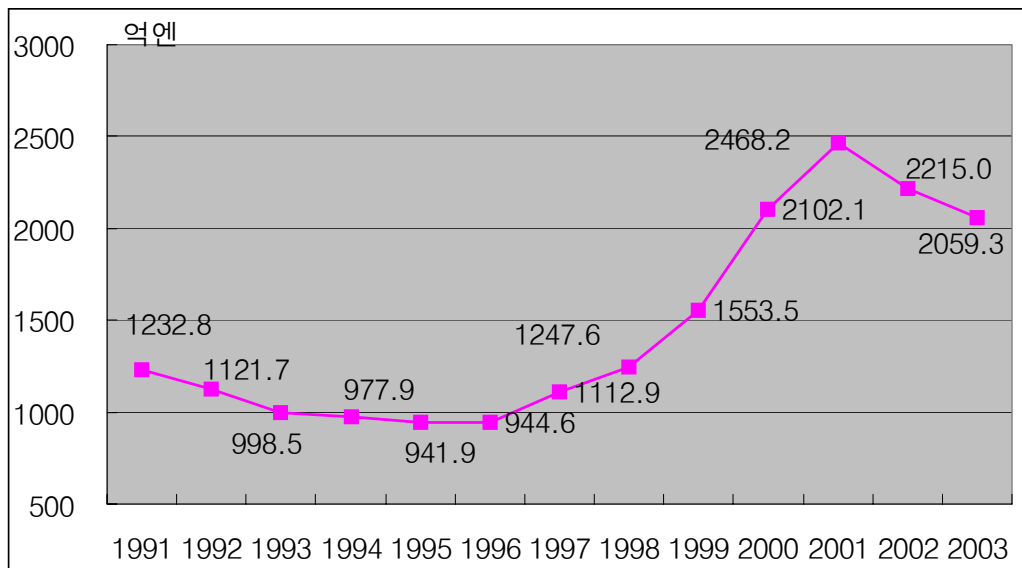
이에 촉매 메이커들은 지구와 국가의 사정을 고려한 제품 개발과 판매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일본 촉매공업협회에 따르면, 2003년 촉매 생산은 전년대비 2% 증가한 9만2250톤, 출하는 3% 증가한 9만3845톤으로 모두 5년 연속 과거 최고기록을 갱신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는 대기오염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돼 수요가 크게 신장됐다. 또 저공해 가솔린 자동차의 보급 확대나 디젤용 규제가 새로 신설된 점이 시장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용과 함께 수요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석유정제용 초심도 탈황용 촉매로, 석유회사가 Sulfur 함유량을 50ppm 이하로 억제한 경유를 2003년 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주 요인이다.

### 일본의 촉매 출하량 변화



2003년 생산은 정유공장 사고 등으로 2002년 실적을 밑돌았으나 앞으로는 Sulfur-Free로 불리는 10ppm 규제가 2005년 실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개발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모든 규제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의 촉매 메이커들은 독자적인 해외전개를 비롯해 외국자본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6/03>